

## 민담, “꿩과 나그네” 속의 민중과 희망

박 정 세 (교수, 연세대학교)

강원도 원주시의 북쪽에 큰 산이 있다. 이 산의 이름은 치악(鷓岳)으로 ‘꿩 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이름과 연계된 전설이 있다. 그 내용은 기록한 시대와 기록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골간은 대동소이한데, 여기에서는 『태백의 설화』에 수록된 것을 옮겨 본다.

어느 날 의성에서 온 한 나그네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고 있었다. 적악산 기슭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꿩들이 애தாக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잔솔밭에 큰 비단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꿩 새끼들을 막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나그네는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 활로 구렁이를 쏘아 죽였다. 그리고 가던 길을 재촉하였지만 마을은 지나쳤고 이미 날이 저물어 산 속에서 묵을 곳을 살피게 되었다.

주변이 점점 캄캄해지는데 마침 불이 비치는 집이 보여 다가가 주인을 부르니 소복을 한 여인이 나왔다. 나그네가 허룻밤 묵기를 청하자 호의적으로 맞아 주었다. 저녁을 잘 대접받고 나니 피곤이 몰려와 나그네는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

한참 잠을 자던 나그네는 몸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잠을

깨어보니 큰 구렁이가 자신을 뚝뚝 감고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대고 있었다. 나그네는 오싹함을 느끼면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고 소리쳤다. 구렁이가 “네가 오는 길에 구렁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뱀이 바로 내 남편이다. 내가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했다.

나그네는 어찌할 수가 없어 뱀에게 살려달라고 하니 뱀은 “뒷 언덕 위의 종이 세 번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했다. 활을 잘 쏘는 나그네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 수락하고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밖으로 나가 종각을 살펴보니 너무 높아 활을 쏘아 맞출 수 없음을 알고 낙담하여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때 갑자기 종이 세 번 울렸다. 그러자 그 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고 나그네는 살아나게 되었다.

나그네는 길을 서둘러 한양에 당도하였고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었다. 금의환향(錦衣還鄉) 하는 길에 나그네는 다시 종이 있던 절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종소리가 난 것을 궁금하게 여기던 그는 장졸을 시켜 종이 있는 곳에 가보도록 했다. 그 장졸은 종 밑에서 머리가 부서져 죽어 있는 새끼 꿩 세 마리를 발견하였다. 꿩들이 머리를 종에 부딪쳐 종소리를 내어 자신들을 살려준 나그네를 구해준 것이었다. 이일이 있은 후 이 산은 치악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아주 넓게 퍼져 있다. 물론 새의 이름이 까치로, 그리고 나그네는 선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꿩’이란 말의 발음이 어려워 ‘까치’로 바꾸어 놓았다고도 한다. 또한 이 이야기는 교육부에서 편찬한 초등학교의 국정교과서에 ‘새의 보은’이란 제목으로 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느 장소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통상 연계 장소가 밝혀지면 ‘전설’로 분류되는 것이 상례인데, 강원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만이 그 장소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치는 않지만, 치악산에 관련된 전설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

서 연고지에 관한 언급이 점차 사라져 민담화 한 것이라 추정하게 된다.

치악산 아래에 있는 원주가 내 고향은 아니지만, 1979년부터 16년 간을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다 여기서 자랐기에 제 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나는 이곳에 있는 동안 한 때 건강을 잃게되어 1년 여를 병상과 침상에 누워있었는데 입원실과 내 방의 창문이 치악산을 향해있어서 그 때는 치악산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고 치악산은 나에게 너무나 친근한 산이 되었다. 이 시기에 치악산 전설을 새롭게 다시 접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반복해 음미하던 어느 날, 나는 이 이야기가 꿩과 구렁이와 같은 동물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는 토착민들의 의식의 전승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지역 민중들의 믿음과 희망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민담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곤 한다. 이 동물들이 말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동물 자체인 경우를 넘어서서 어떤 인물들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이야기는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빗대어 뜻을 전달하는데 큰 효과를 준다. 특히 심각한 억압적 상황에 처해있을 때 매우 유용한 방편이 된다고 하겠다.

#### ◇ 상황 I : 어느 날 - 상징화된 역사의 현장

어느 날, 잔솔밭 아래 커다란 비단 구렁이가 꿩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또아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이 때, 우리는 이 표현을 과거의 어느 날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이 말은 특정화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특정치 않은 날이란 ‘어느 날이어도 무방’하다는 뜻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그와 동일한 날들이 오랫동안 연속되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됨을 위장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시기를 분명하게 꼬집지 않은 것은 자칫 그 자체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즉 포악한 압제자들의 의구심을 모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에는 꿩과 뱀이 등장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놈은 강한 놈의 먹이가 됨이 소위 '정글의 법칙'이다. 뱀은 배가 고프면 언제든 꿩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는 별로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과 이에 따른 역사를 살펴보면 꿩과 뱀과의 관계는 동물들 간의 관계에만 국한 할 수 없는, 인간들의 사회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원주에는 제1 군사령부가 있지만, 삼국시대로부터 이 산악지역은 변경으로 자주 통치자가 바뀌는 지역으로 특히 강력한 군대의 장수들이 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접령군은 언제나 혹독하게 그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 조선 조에서는 이 지역이 지역적으로 수도와 가까우면서도 산세가 험하고 관의 힘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이야말로 누명을 쓴 도망자나 은둔자들이 쉽게 숨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어떤 이는 이 곳에서 의도(義盜) 임격정이 출생하였다고도 하고, 어떤 고을은 반역과 연계되어 재산과 인명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이곳 토착민들은 착한 심성을 지녔기에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나간 역사적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온 통치자들의 강탈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야기 속의 구렁이와 꿩의 관계는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포악한 지배자와 나약한 토착민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상황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촌 마을들은 대체로 작은 소나무 밭으로 에워싸져 있으므로, 꿩이 동지를 튼 '잔솔밭'이란 바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표

시하고 있으며, 꿩은 농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뱀은 누구나 다 싫어한다. 보기에도 끔찍하지만 날름 거리는 혀는 더욱 공포를 느끼게 한다. 구렁이의 모습을 표현함에 있어서 ‘비단’이란 용어는 이 뱀이 부유한 강압적 지배자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꿩과 구렁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역민들을 마음대로 강탈하는 지배자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또 이러한 동물의 이야기는 토착민들이 그들의 형편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들은 상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민중의 지혜라 하겠다.

#### ◇ 상황Ⅱ : 민중의 일차적 희망 - 상황변화의 촉매

의성에서 온 나그네가 꿩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활을 당겨 구렁이를 쏘아 죽였다

의성에서 한 나그네가 그 곳에 도착하였다. ‘의성’이란 지명의 한자말의 뜻은 ‘의로운 곳’ 혹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 지명은 그 나그네의 범상치 않은 성품을 암시한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란 당시의 제도상 자신의 삶의 여건을 크게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의 그 나그네는 이 지역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줄 것으로 기대되는 구원자로 상징되고, 이 지역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그들에게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나그네의 이름이나 신분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그의 근거지인 ‘의성’이란 말이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도탄에서 구원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도령이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꿩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분명 고난받은 토착민들의 외마디

임이 분명하다. 이 탄식 소리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울부짖음 같은 것이라 하겠다. 사람들은 악한 지배자에게 희생되는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 지배자의 포악성 때문에 감히 이러한 억울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과 무관하게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에게 샘솟는 측은함은 즉시 그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반전하도록 행동케 하였다. 그는 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활을 쏘아 구렁이를 죽임으로써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았다. 나그네가 꿩 새끼를 뱀에게서 구한 것은 포악한 지배자로부터 토착민을 구출하는 행동을 감행한 것을 의미한다. 나그네의 직접적 관여가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았다.

이러한 모습은 성서의 누가복음(10:30-70)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이 전설과 성서의 이야기 상호간에는 몇 가지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전설엔 의성에서 온 사람이라면, 성서는 그가 비록 사마리아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외지의 지명이 뜻하는 바는 ‘의롭’든 혹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든 같은 범주를 상징하고 있다. 둘째로, 전설에서 나그네가 수탈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됨을 전하는 바, 성서에서는 수탈 당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나그네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고통받는 자를 목격할 때 먼저 ‘측은함’을 느끼고 다른 어떤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상황의 반전을 위해 행동하였다. 활로 쏘아 뱀을 제거하듯이, 죽어 가는 사람을 응급처치하여 주막으로 데려온 것이다.

우리는 두 이야기에서 고통받는 자를 돕는데 매우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함과 더불어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설에서는 (주인공이) 잘못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사태의 발생 원인자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 반면

에, 성서에서는 그 전반 상황이 전설과 같지는 않은 점을 전제할 수 있지만, 하여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겠다.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이웃인가를 설명하고 있기에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전설의 해결방식은 본회퍼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설은 우리에게, 민중의 일차적 희망은 잘못된 상황을 계속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직접 제거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 상황Ⅲ : 기득권의 승리 - 의인의 고난

암구렁이가 소복단장하여 나그네를 끌어들이 복수하려 함

암구렁이가 소복한 여자로 변신하였다. 여기서도 이 구렁이들이 구렁이 자체가 아님이 노출된다. 이 구렁이들은 바로 폭력을 구사하는 억압자들이었다. 구렁이가 소복 단장한 여인으로 변신하였다는 말은 이들 억압자들이 지닌 전능에 가까운 권력과 술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비단 구렁이의 부인이라는 표현은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암시해준다. 본시 그들은 서로 남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복이라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지배자의 무기이다. 그 보복은 언제나 잔인하고도 무서운 것이었다. 그들은 도전자의 일족을 멸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항거한 자가 살던 지역을 쑥밭으로 만들었다. 광주항쟁이 된 광주사태의 정황은 이러한 관습이 현대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악으로 물든 제도와 사회적 구조로 인해 고통을 모면할 길이 없다. 많은 의인들이 포악한 강탈자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고안해 낸 거짓 증거와 명분 속에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

적 정황은 정말 오랜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설 속의 의로운 나그네 역시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희생된 것이 실제의 역사임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의인도 이러한 정황 속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중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지 못하고 있다. 비록 현실에서는 패배 그 자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을 이끄는 그 무엇이 이들의 좌절을 넘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민중에 의해서 계속된다. 비록 역사의 현장에서 의로운 나그네는 죽었지만 민중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나그네의 모습은 새로운 이야기로 창조되어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 엘셀바도로의 로메로 주교가 “자신은 죽더라도 자유와 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 ◇ 상황Ⅳ : 민중의 아까운 희생 - 상황의 반전

암구렁이와 논쟁하여 종이 세 번 울리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니 새끼뽕들의 희생으로 살게되다.

나그네는 암구렁이와 논쟁 끝에 한 방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악한 지배자에게는 오직 보복적 처벌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쟁을 하고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민중의 꿈이요 하늘을 향한 호소와 하늘의 개입을 강하게 요청하는 애절한 마음이 창안한 상황이다.

종이 울린다고 하는 것은 어둠과 악마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것으로 하늘의 뜻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은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인지 하늘을 향해 물어보자고 외치고 있는데, 이는 하늘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다는 확신 속에 하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3번이란 숫자 역시 완전수로 온전한 결말



을 추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종은 울렸다. 하늘이 나그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이면에는 새끼 꿩들의, 즉 피압박 민중의 자발적 희생이 상황을 반전했다는 것이다. 하늘은, 하늘을 향한 민중의 울부짖음을 듣고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것으로, 울리지 않았다면, 나그네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중의 보은의 희생으로 상황은 역전되었다는 것이요,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 자체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민중은 정말 뜻 있는 일이라 판단되면 언제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민중의 희망과 연결된 결의의 선포이다. 민중은 적어도 자신들을 위해 희생당한 의인들을 위해선 자신들도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요, 진정으로 자신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의인을 고대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민담, ‘꿩과 나그네’에서 꿩으로 상징된 민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던 민중과 다르다. 한국의 민중신학의 민중은 바로 이러한 민담의 민중의식이 소유된 민중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비록 억압과 소외와 좌절 속에 있지만, 때가 오면 혹은 여건이 조성되면 하늘의 도움아래 고난받는 의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역사를 변화시킬 힘을 내재하고 있음을 믿으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 이야기는 전승해 오고 있는 것이다.